

시민중심! 행복삼척!



= 노인복지 해외연수 =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 기 간 : '14.11.04(화) ~ 11.12(7박9일)
- 장 소 :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 참 석 : 사회복지과 김은순 외 3명
- 내 용
 - 동유럽 국가의 노인복지정책 자료수집 및 탐방
 - 직원 자기개발 기회 부여, 사기진작



삼척시

- 목 차 -

I. 연수개요	1
II. 연수일정	1-2
III. 연수자 명단	3
VI. 연수내용	3-16
1. 연수국가 소개	3-5
2. 연수지역별 주요 내용	6-12
3. 동유럽의 노인복지 현황	12-16
4. 노인복지기관 공식방문 내용	16-18
V. 해외연수 소감	16-18

2014 삼척시 동유럽 해외연수 보고서

I 연수개요

- 연 수 명 : 삼척시 동유럽국가의 노인복지정책 자료 수집 등 해외연수
- 연수국가 : 동유럽(독일,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 연수기간 : 2014. 11. 04(화) ~ 11. 12(수) / 7박9일
- 연수인원 : 4명(김은순 외 3명)
- 목 적
 - 점차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삼척시에 적합한 노인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동유럽 국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복지현장을 탐방하고자 함
 - 선진국가의 방문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삼척시 복지정책 활용

II 연수일정

일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연 수 일 정
제1일 11/04 (화)	인천 프랑크푸르트 (독 일) 뉘른베르크	KE935 대한항공 전용버스	09:45 13:35 17:40	인천국제공항 집결후 출국수속 인천국제공항 출발 / 프랑크푸르트 향발 (11시간 소요)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도착 입국수속(현지시각) 뉘른베르크 이동 (약 3시간 30분 소요) 호텔 투숙 뉘른베르크 숙박
제2일 11/05 (수)	뉘른베르크 카를로비바리 (체코) 비셰흐라드 프라하	전용버스		카를로비바리에서 온천수 마시며 산책 비셰흐라드로 이동 (약 4시간 30분 소요) ◇ 현장문화탐방 ▶ 천년 비운의 역사를 함께한 성베드로와 바울성당 외 견학 비셰흐라드 - 프라하로 이동(약 30분 소요) ◇ 노인복지시설방문 (Domov Dúchodců)
제3일 11/06 (목)	프라하 부르노	전용버스		◇ 현장문화탐방 ▶ 프라하에서 대표적인 관광지 카를교, 바츨라프광장, 틴교회 등 견학 ▶ 프라하 시내의 주요 교통수단인 트램탑승 체험 프라하 - 부르노로 이동(약 2시간 30분 소요)

				(숙박 - 부르노)
제4일 11/7 (금)	부르노 부다페스트 (헝가리)	전용버스		부르노- 헝가리수도 부다페스트로 이동 (약 3시간 소요) ◇ 현장문화탐방 ▶ 어부의 요새, 마차시사원, 부다왕궁, 겔레르트 언덕, 성이 슈트반 대성당, 영웅광장 견학 (숙박 - 부다페스트)
제5일 11/08 (토)	부다페스트 비엔나 (오스트리아)	전용버스		부다페스트 - 비엔나로 이동(약 3시간 소요) ◇ 현장문화탐방 ▶ 쉘브른궁전, 케른트너 거리, 성슈테판 사원, 국립오페라극장, 벨베데레 상궁 내부입장하여 클림트의 “키스” 견학 ◇ 노인복지시설방문(HAUS NEUBAU FÜR PENSIONISTEN) 숙박-비엔나
제6일 11/09 (일)	비엔나 짤츠감머구트 짤츠부르크 (독 일)	전용버스		비엔나-짤츠감머구트로 이동(약 3시간 소요) ◇ 현장문화탐방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할슈타트 견학 ▶ 미라벨정원, 호엔짤쯔부르크 성, 모차르트생가, 대성당, 케트라이데 거리 견학 (숙박 - 짤츠부르크)
제7일 11/10 (월)	짤츠부르크 인스부르크 (독 일) 뮌헨 울름	전용버스		짤츠부르크-인스부르크 이동 (약 2시간 소요) ◇ 현장문화탐방 ▶ “백조의 성” 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노이슈반슈타인성 견학 인스부르크 -뮌헨 이동 (약 1시간 30분 소요) 뮌헨-울름으로 이동(약 1시간 소요) (숙박 - 울름)
제8일 11/11 (화)	울름 로텐부르크 프랑크부르크	전용버스		울름-로텐부르크로 이동(약 1시간 30분 소요) ◇ 현장문화탐방 ▶ 로텐부르크 시청사, 성야곱교회, 마르크트광장, 로텐부르크 시내관광 프랑크프르트 시청사, 뢰머광장 견학 로텐부르크- 프랑크프르트 (약 2시간 소요) HOTEL : 기내숙박
제9일 11/12 (수)	인 천		14:05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공무국외 탐방 종료

III

연수자 명단

연번	성명	소속기관
1	김은순	민원봉사과
2	한은자	보건정책과
3	최승순	민원봉사과
4	김숙녀	세무과

IV

연수내용

1. 연수국가 소개

□ 체코 (Czech)

○ 국명 : 체코 공화국 (The Czech Republic)

(1993.1.1 체코슬로바키아연방은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으로 분리)

○ 수도 : 프라하(Prague)

○ 인구 : 10,609,762(2013)

○ 면적 : 78,864km²(한반도의 약 1/3)

○ 주요도시 : 브르노(Brno), 오스트라바(Ostra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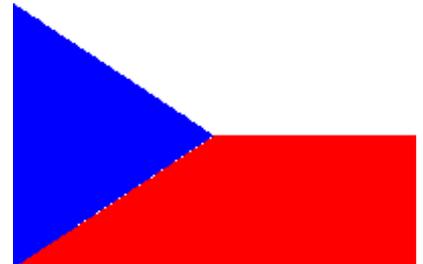
○ 주요민족 : 체코인(Czech)90%, 모나비아인(Moravan)4%, 슬로바키아인(Slovak)1.9%,

○ 주요언어 : 체코어(Czech)

○ 종교 : 가톨릭(27%), 그리스도교(2%)

○ 개요 : 체코는 중부 유럽에 속해 있고 주위로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체코는 지리적으로 꽤 다양한 편이다. 자국 내에서 가장 높은 산인 스네슈카(체코어: Sněžka) 산(1602m)이 이 곳에 있다.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는 블타바강과 라베강 사이에 있다. 중세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작은 거리



들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프라하성은 우리를 중세로 초대한다. 음악과 인형극, 낭만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체코에서 중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 헝가리 (Hungary)

- 수도 : 부다페스트(Budapest)
- 인 구 : 9,939,470명(2013)
- 면 적 : 93,028km²(한반도의 약 2/5)
- 주요도시 : 부다페스트(Budapest), 미슈콜(Miskolc), 데브레첸(Debrecen), 세게드(Szeged), 페취(Pecs)
- 주요민족 : 마자르인(Magyars)92%, 로마인(Roman), 독일인(German), 슬로바키아인(Slovak)
- 주요언어 : 헝가리어(Hungarian)
- 종교 : 로마가톨릭(52%), 칼뱅주의(16%), 루터교
- 개요 : 농업은 국내 총생산(GDP)의 약 1/8을 차지하고 있고 경작지의 약 3/5가 옥수수, 밀, 보리가 많이 재배된다. 오스트리아와 체코 등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헝가리는 카르파티아 산맥 근처에 위치하여 있고 다뉴브강이 헝가리를 크게 두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관광지로서의 부다페스트는 도나우강을 낀 풍경의 아름다움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부다와 페스트는 원래 별개의 도시로 발달하였다. 14세기경부터 부다는 헝가리의 수도가 되고, 1872년 부다와 페스트는 합병하여 오늘에 이른다. 예술계와 과학분야에 큰 공헌을 한 헝가리인이 많다.

□ 오스트리아 (Austria)

- 수도 : 빈(Wien)
- 인 구 : 82,221,646명(2013)
- 면 적 : 356,885km²(한반도의 약 1.6배)
- 주요도시 : 빈(Wien), 인스브루크(Innsbruck), 쾰츠부르크(Salzburg)

- 주요민족 : 게르만족(Germanic)
- 주요언어 : 독일어(German), 영어(English)
- 종 교 : 가톨릭(72%), 그리스도교(6.1%), 이슬람(4.9%)
- 개 요 : 습기가 많은 대륙성 기후이며, 산이 많고 육지로 둘러 싸여 있으며, 제조업과 사업에 기초를 둔 혼합된 자유시장경제와 국영경제가 발달하였으며, 관광이 주된 소득원이다. 국민은 합리적인 사고 방식과 검소한 생활양식을 나타낸다. 과거 역사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이 매우 강하며, 특히 음악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보여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람스와 같은 세계적인 음악가를 배출해 내기도 했다.

□ 독일연방공화국 (Federal Republic Germany)

- 수 도 : 베를린(행정부 소재지는 본)
 - 인 구 : 81,147,265명(2013)
 - 면 적 : 357,022km²(한반도의 약 1.4배)
 - 주요도시 : 함부르크(Hamburg), 쾰른(Köln)
프랑크푸르트(Frankfurt), 뮌헨(München)
- 
- 주요민족 : 게르만계(Germane)92%, 터키인 2%
 - 주요언어 : 독일어(Deutsch)
 - 종 교 : 그리스도교(34%), 로마가톨릭교(34%), 그 외 이슬람교 등
 - 통화단위 : 유로(euro)
 - 개 요 : 1990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국명이 도이칠란드연방공화국으로 바뀌었으며, 남쪽지방은 바이에른 알프스 산맥이 솟아있다. 라인강 분지가 독일의 중부와 서부지역을 차지한다. 독일은 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기반한 발전된 자유시장 경제 체제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자동차와 철·강철 제품을 수출한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우승국으로 축구로도 유명하다.

2. 연수지역별 주요 내용

□ 체코 (Czech)

○ 카를로비바리 온천

세계 3대 온천중의 하나이며 아주 작은 도시이다. 대표적인 건물은 없지만 온천은 세계에서 손꼽히며 사랑받고 있는 곳이다. 독특한 것은 몸을 담그는 온천이 아니라 마시는 온천이라는 것이다.

○ 프라하(리부셰 공주 동상)

이곳은 체코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설에 의하면 비세흐라드는 체코의 왕위가 설립된 최초의 장소였고, 리부셰 공주가 프라하 도시의 영광을 예견했던 곳이다. 동상이 가리키는 곳을 향하면 프라하성이 나온다. 아름다움은 보헤미아 왕국의 천년역사와, 무엇보다 세기를 뛰어넘어 집대성된 다양한 건축에서 비롯된다. ‘북쪽의 로마’라 불리며 구시가지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세 유적의 도시다. 프라하의 야경은 낮보다 아름다웠다.

○ 성베드로와 바울성당(외관)

화려한 신고딕 양식의 대성당은 11세기에 처음 세워졌으며, 지난 수세기 동안 수차례 확장되고 재건설 되었다. 현재 실내장식 대부분은 1900년대 초기작품이다. 대성당은 서쪽 파사드만 보아도 후회가 없다. 입구 위의 모자이크와 석조 돌을새김, 하늘 높이 치솟은 성 모양의 첨탑들은 특히나 인상적이다.

○ 유명인들의 무덤

이곳에 체코의 국민작가와 문화예술인들이 수없이 묻혀 있다. 보헤미안 역사상 가장 눈부시게 빛난 인물들을 기리는 기념비적 무덤이다. 위대한 체코음악가와 문인들, 대표적인 유명 인사로는 보헤미안 최고의 작곡가 안토닌 드보르작, 체코 민족음악의 창시자인 베드리지흐 스타메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카멜차페크 등이다. 공동묘지 자체도 하나의 조각공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흥미롭고 아름답다.

○ 틴 성모교회

고딕 양식의 교회로 세 개의 측면 복도가 있으며 높이 80m의 쌍둥이 첨탑이 돋보인다. 교회안에는 16~17C에 프라하의 황제 루돌프 2세의 레지덴스에 머물렀던 덴마크 천문학자 티고 드 브라헤(Tycho de Brahe)의 무덤이 있다. 원

래 이름은 틴 앞의 성모마리아 교회지만 일반적으로 틴교회라고 부른다.

○ 카를교

600년 전 보헤미아 왕조의 카를4세가 만들었다하여 카를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12세기에 이미 목재교가 같은 위치에 있었으나 강이 범람할 때 붕괴되어 1357년 카를4세 때 교회 건축가인 피터 팔레지(Petr Parler)가 다시 건축하여 1402년 완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516m의 길이에 16개의 기둥과 3개의 브릿지 타워가 있다. 구시가지 브릿지 타워는 많은 조각상으로 인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브릿지 타워로 꼽히고 있다.

○ 바츨라프광장

바츨라프광장에서 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몰락으로 바츨라프 기마상 밑에서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 출범이 선포되었고, 1938년에는 뮌헨협정으로 독일의 나치 군대가 이 광장을 점령하였다. 1948년 공산당의 권력 장악으로 이 광장에서 사회주의공화국이 선포되었고, 1968년 ‘프라하의 봄’ 당시 소련의 무차별 진압이 있었으며, 체코 국민들은 이 광장을 중심으로 저항하였다. 1989년 민주화 혁명(벨벳혁명)의 중심지가 되었다.

○ 천문시계

1437년에 제작된 이 천문시계는 천동설에 기초한 두개의 원이 나란히 돌아간다. 매 시각마다 한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시간을 알리는 이 시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끊이지 않고 몰리는데, 두개의 원반위에 있는 천사의 조각상 양 옆으로 창문이 열리고, 죽음의 신이 울리는 종소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창 안쪽으로 천천히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시계의 위쪽에 있는 닭이 운다. 몇 번의 수리와 1948년에 설치된 전동장치에 의해 지금까지 그 아름답고 신기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 헝가리 (Hungary)

○ 부다페스트 시내 관람(겔레르트 언덕, 부다왕궁, 어부의 요새)

겔레르트 언덕은 부다페스트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으로, 왕궁의 언덕 남쪽에 있는 해발 235m의 바위산이다.

부다 왕궁은 네오바로크 양식의 부다페스트의 상징이다. 13세기에 세워진 것으로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는 않지만 역사박물관, 헝가리 노동운동 박물관, 국립 미술관은 공개된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왕궁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의 모습은 1950년대에 완성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된 것을 복구하면서 수많은 유물들이 발굴되어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근접해서 마치니 교회가 있으며, 어부의 요새에서는 세체니 다리와 멋진 부다페스트 시내 전망을 할 수 있는 관람 포인트가 자리한다. 네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뾰족한 고깔 모양의 일곱 개의 타워로 설계되어 있고 각 타워들은 수천년 전에 나라를 세운 일곱 개의 마자르 족을 상징한다.

○ 성이슈트반 대성당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성 이스트반 대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성당으로 특이한 점은 이 성당 중앙 돔의 높이는 96m인데, 이는 헝가리인의 조상인 마자르 족이 처음으로 이 지역에 자리잡은 해인 896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페스트 지역에 세워져있는 국회의사당의 돔 높이도 마찬가지로 96m이고, 또한 다뉴브 강변의 모든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위해 이보다 높이 지을 수 없게 규제되어 있다고 한다. 네오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로 내부에는 성 이스트반의 오른쪽 손목이 다른 유품과 함께 진열되어 있다. 성당의 이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 영웅광장

조각가 지 자라(Gy. Zala)와 건축가 쉬케단츠(Schickedanz)에 의해 디자인되어 1929년에 완성되었다. 36m의 원주기둥 꼭대기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서 있고 밑의 받침대에는 헝가리의 각 부족을 이끄는 7명의 지도자들이 있다. 헝가리 정착 1000년을 기념하여 1896년에 세워진 기념비가 있는 광장이다.



□ 오스트리아 (Austria)

○ 쉐nbrun 궁전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궁전으로 매우 화려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셴브룬이라는 이름은 1619년 마티아스 황제가 사냥도중 아름다운 샘 (Schoener Brunnen)을 발견한데서 유래하고 있다. 외부 건물은 크림색이며 내부는 18C 후반에 마리아 테레지아가 수집한 동양의 자기나 칠기, 페르시아의 세밀화 등으로 우아하고 호화롭게 로코코식으로 꾸며져 있다. 왕궁정원은 약 1.7km²에 달하는 바로크 양식으로 단장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다수의 분수와 그리스신화를 주제로 한 44개의 대리석상들이 있다.

○ 국립오페라 극장

르네상스 양식의 극장으로 1869년 5월 25일 처음 문을 열었다. 다른 나라의 유명 오페라극장보다 늦게 개장되었다. 유럽 3대 오페라 극장 중의 하나로 공연 횟수는 파리·밀라노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려한 외부에 어울리게 내부도 고블란의 태피스트리와 모차르트의 마적을 주제로 한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화려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2차 세계 대전에 화재를 당했던 건물은 1955년에 재건되었다. 세계 최고 수준, 최고 품격의 오페라를 공연하는 극장으로 정평이 나 있고, 세계 모든 오페라 예술가들의 열망이 담겨있는 곳이다.

○ 성슈테판사원

1147년에 건축을 시작한 후 1258년 대화재로 소실되었고, 보헤미아왕에 의해 재건되었다가 합스부르크왕가에 의해 1359년에 현재 양식으로 개축되었다. 137m에 달하는 첨탑이 있는 거대한 사원으로 오스트리아 최대의 고딕양식의 건물이다. 사원의 내부는 석조 부조의 설교대가 있으며,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이 매우 아름답다. 모차르트의 결혼식과 장례식이 거행된 곳이고, 하이든과 슈

베르트가 성가대로 활동했던 곳이기도 하다.

○ 미라벨정원과 궁전

바로크 양식의 “아름다운”이라는 뜻 “미라벨” 정원과 궁전은 분수와 연못, 대리석 조각물, 꽃 등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곳은 모차르트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곳이다. 모차르트가 궁전 내 대리석 홀에서 대 주교를 위해 연주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실내악 연주회가 자주 열린다고 한다.

○ 호헨잘츠부르크 성

호엔 잘츠부르크 성은 유럽 최대의 중세 성채로 거리 어느 곳에서도 쳐다보이는 상징적 존재로 높이 자리를 잡고 있다. 잘차흐강보다 120 미터 높은 뮌히스베르크 석회암 언덕에 세워진 성으로 전쟁으로 파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었다. 1077년 대주교 게브하르트에 의해 건설이 시작되었고 이후 15세기 말까지 대주교가 기거하면서 탑, 대포, 성문, 망루, 무기고 등의 증설, 확장이 계속 이뤄졌으며 16세기 현재의 모습이 완성됐다고 한다.

○ 잘츠부르크 대성당

구시가의 중앙에 자리잡은 이테리 바로크식 성당으로 12세기에 세워져 독일까지 가톨릭 전파에 큰 역할을 했던 성당이다. 1598년 화재로 인해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지만 볼프디트리히 주교(1587~1612)에 의해 다시 잘츠부르크를 로마의 축소형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 되었다. 또한 대성당안에서는 모차르트의 발자취를 찾아 볼수 있는데 그가 연주했던 파이프 오르간과 유아영세를 받았던 성수함 등이 남아있다. 유럽에서 최대의 파이프 오르간을 가진 성당으로 앞에는 돔광장이 펼쳐져 있고 마리아상과 돔박물관이 있어 대성당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 인스부르크 시내 관람(황금지붕, 마리아 테레지아 거리 등)

인스부르크는 2000년 전에는 로마군단의 주둔지 였고, 예로부터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재 못미처에 있는 주막 마을로 인적이 끊이지 않았다. 15세기에 막시밀리안 대제가 티롤의 도움을 이탈리아의 남티롤에서 이곳으로 옮긴이래 마리아테레지아 등 합스부르크 왕가의 사랑을 받으며 번영해 왔다고 한다. 전설이 깃든 황금지붕(Goldenes Dach)은 헤르초크 프리드리히 거리의 막다른 곳에서 금빛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지붕이다. 16세기에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아

래 광장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구경하기 위해 만든 발코니 위에 설치한 것으로 궁전 건물의 5층에서 내민 이 지붕은 금박 입힌 동판 2657개로 덮여있고 발코니에는 여덟 영지의 문장과 황제, 왕비상 등이 부조되어 있으며, 벽은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다. 내부는 올림픽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Germany)

○ 로텐부르크 시청 및 광장

로텐부르크는 1274년 '황제의 자유 도시' 라는 자격을 부여 받은 유서 깊은 곳으로 17세기 30년 전쟁 때 번영을 누리기도 하였다. 30년 전쟁동안 로텐부르크 시가 무사 할 수 있었던 것은 로텐부르크 시장이 황제의 장군인 킬리와 와인 마시기 내기를 했는데 3.5리터 와인을 단숨에 원샷으로 마셔 버려 로텐부르크 시를 구한 시장이 되었다. 현재 시청 옆 시의회 연회관 건물의 마이스터 룽크 시계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시 정각에, 여름철에는 밤 9시와 10시에 시장의 무용담을 인형으로 각각 재연하고 있다.

○ 야곱교회

1311년부터 174년에 걸쳐 건립된 로텐부르크를 상징하는 고딕양식의 교회는 스테인글라스와 파이프가 5,500개나 되는 대형 파이프오르간이 있다. 특히 중앙 제단은 1466년 프리드리히 헤를린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고의 조각가로 칭송받는 티만 리멘슈나이더의 나무 조각 작품인 최후의 만찬을 비롯한 중세 보물급 예술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성혈제단 앞면을 장식한 금 십자가에 박힌 크리스탈안에 예수님의 피 세방울이 담겨 있다는 전설 때문에 유명해져서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일행은 예수님의 핏방울을 찾지 못했다.

○ 프랑크푸르트 시청사, 뢰머광장

1405년 프랑크푸르트 시의회가 귀족의 저택 3채를 사들여 시청사로 개조해

사용했는데, 이 중에서 가운데 1채를 퇴머로 불렀다. 퇴머는 역대 황제들이 연회를 베풀던 곳으로 유명한데, 2층의 넓은 홀은 1562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처음으로 황제 대관식이 거행된 이래 ‘황제의 넓은 방’ 으로 불린다. 시청사 앞의 퇴머 광장 중앙에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천칭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 이 있고, 시청 내부를 들어가니 도서들을 진열하여 놓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책을 팔기도하지만 읽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여 놓고 있었다.



3. 동유럽의 노인복지 현황

□ 노인복지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여러 나라 중 노인복지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인데, 오스트리아 역시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와 같이 인구고령화 현상이 현저하다. 1970년 65세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14.1%, 1990년에는 15.2%였다. 2010년에는 18.4%로, 2025년에는 22.9%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60세이상 노인은 1백50만이 넘는데, 평균수명은 남성의 경우 72.6세이며 여성노인의 경우 79.2세이다.

오스트리아의 사회보장 체제는 두 가지 형태를 지니는데, 이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이다. 전체인구의 99%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사회부조는 9개의 지역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사회부조의 형태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사회부조와 관련한 활동은 지역 내 시설 및 민간단체 등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노인거주 주택은 대체로 오래된 건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노인 아파트에 승강기를 설치해 주고 있고, 무이자 공공대부, 노인 아파트 소유자에게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환부를 보다 쉽게 하도록 하는 특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노인주거 시설에 대한 위생 및 난방 서비스 등의 개선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특이한 것은 1960년대 이후, 소위 「30명 연금자의 집」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거 시설은 비엔나에 설립되어 현재 약 8천명의 노인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시설에 근무하기도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공익근무요원(8개월 근무)이 노인을 직접 방문하면서 식사수발 및 가사를 도와주고 있었다. 한 사람이 매일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케어를 한다. 그렇게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은 8개월을 노인수발하면 군 면제가 된다.

독일은 1970년대 초부터 노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년학 분야에 많은 연구가 시작되었다. 노인 및 노령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 성격의 학문으로서 노년학은 이제 이 분야에서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다. 독일은 수십 년간 평균 1.4명의 낮은 출산율과 꾸준한 평균수명 연장으로 2040년까지 노령자 및 고령자 비중은 3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에는 3명중 1명이 노인 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2013년 3월 발표된 ‘2011년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 통계’에 따르면, 현재 복지 제도는 생계지원, 노인과 최소 소득자지원, 의료지원, 장애인지원, 간병지원,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한 복지 그리고 기타지원 등 7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그물망 체계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 연금생활자 노인들의 생활은 가히 천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100% 충족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인들이 이같은 재정 부담과 함께 노인요양비 증가로 ‘오마 익스포트’(Oma Export)라고 하는 할머니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헝가리, 체코 등 7,000여명이 요양시설을 이용하러 국내를 떠나 있다고 한다. 독일 인구의 계속된 고령화로 노인의 수는 급증하는 반면 요양시설과 인력은 충분하지 않아 가격이 비싸진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독일의 요양시설은 한달 평균 2,900유로(약410만원)을 내야 하나,

동유럽 요양시설은 하루 종일 간병을 받아도 1000~1400유로(약 140만~200만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총금액 250만원으로 요양병원에서 24시간 케어를 받을 수 있고, 요양원은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총금액이 180만원(정부80%, 개인20%) 정도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연륜에서 오는 경험을 활용하고 젊은 세대와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가정에서는 손자세대를 돌보고 사회적으로는 어린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양로시설과 유치원을 같이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노인들이 서로 수발을 품앗이 하는 등의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 Domov Důchodců(도모브 듀우호드쵸우) (체코, 프라하)

- 방문일시 : 2014. 11. 0. 4. 노인복지기관 공식방문 내용

- 소재지 : Donovalska 2222/31, Praha 4 - Chodov

- 내용 : 체코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노인 요양원으로 기본적인 건강 관리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진료과목 및 전문가 집단에 의해 (정신과, 심리학자, 이비인후과, 피부전문가, 외과, 비뇨기과, 신경과) 관리되어진다.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안락한 거실이 있어 어르신에게 안정감을 주고, 도서관이 비치되어 있어 어르신들의 치매 치료를 위한 테라피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

Domov Důchodců(도모브 듀우호드쵸우) 방문



□ HAUS NEUBAU FÜR PENSIONISTEN (하우스 노우바우 퓨

팡즈니즌) (오스트리아, 비엔나)

- 방문일시 : 2014. 11. 0.
- 소재지 : Bentheimstrasse 5, 1210 Viena, Austria
- 내용 : 비엔나에 소재한 요양시설로 독방 197개. 2인1실 17개. 개별간호를 받고 있으며, 5번 음식물 제공과 넓은 거실을 갖추고 있어 노인들이 정서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음. 오스트리아에서는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등급이 7등급으로 나뉘는데 3등급부터 7등급까지 요양원에 입원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경우 사회가 부담하고 있다.

요양원 현관에 포스터가 붙여져 있는데 “비흡연자 중 건강한 60세에서 70세 같이 일하실분” 라고 구인광고를 하고 있었다.

HAUS NEUBAU FÜR PENSIONISTEN (하우스 노우바우 퓨 팡즈니즌) 방문



□ GDA Hildastift am Kurpark (힐다트 쿠르파크)(독일, 비스바덴)

- 자료수집 : 2014. 11. 11.
- 소재지 : Hildastraße 2 65189 Wiesbaden, Deutschland
- 내용 : 최고급 양로원으로 호텔처럼 이용하면서 각자의 사생활 보호도 되고, 의료 및 간호를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공원을 거닐고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극장과 오페라 관람, 쇼핑, 운동, 물리치료, 맛사지, 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정기적 오락프로그램이 제공되고 단기시설 및 장기전환도 가능하며, 120명의 전문직종의 공동복지협회팀이 구성되어 문화컨설턴트, 간호, 경제관리, 청소, 건물보수, 조리사, 홈오토메이션, 서비스관리사 등 다양한 직종 팀원이 구성되어 있다. 병원이 있어 치료가 가능하고 간

병인을 두고 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고급호텔에서 살면서 요양하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여행객들에게도 방을 대여해주는 호텔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V

해외연수 소감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고령화 사회로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시작하여 고령화의 속도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2008년부터 우리나라도 많은 노력 끝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4대보험이 정착되는 단계가 되어가고 있다. 읍·면에 근무하면서 삼척시 주민들의 노령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선진 유럽의 여러 국가들 중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고령화에 대한 연구가 일찍 진행되고 있기에 인구고령화 현상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겪어왔고 그만큼 발전된 노인복지 정책이 마련되어 있기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품고 독일행 비행기 트랙을 밟았다.

우리 일행이 선진국의 노인복지를 알아보기 위해 견학한 곳은 총 3곳으로

[Domov Důchodců\(도모브 듀우호드츠히우\)](#), [HAUS NEUBAU FÜR PENSIONISTEN](#) (하우스 노우바우 퓨 팡즈니즌), [GDA Hildastift am Kurpark](#) (힐다트 쿠르파크)등이다.

체코의 노인요양시설인 [Domov Důchodců\(도모브 듀우호드츠히우\)](#)도 오스트리아의 시설 못지않게 훌륭하다. 국내의 요양시설에서 느껴졌던 특유의 딱딱한 분위기 보다는 가정적이고 안락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Domov Důchodců는 건축물로서도 체코 내에서 가장 훌륭한 건축물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또한 분야별로 전문 의사 등 의료진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의료시설로서도 손색이 없다.

그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인 [HAUS NEUBAU FÜR PENSIONISTEN](#) (하우스 노우바우 퓨 팡즈니즌)이다.

시설안내 자료와 식단표 등 자료를 수집하고, 시설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도 있었고, 다른 점도 많았는데 시설 내 각종 안전장치, 매장, 종교 및 취미활동 공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노인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차를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녁시간을 즐기고 계셨으며, 같이 촬영을 요청하였으나 손을 내 저으시며 거절하셨다.

독일의 GDA Hildastift am Kurpark (힐다트 쿠르파크)는 방문기회가 없어서 현지 가이드에게 부탁하여 자료 수집만 하였다. 최고급호텔 같은 곳이었는데 호텔처럼 이용하면서 각자의 사생활보호도 되고, 의료 및 간호를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간병인을 두어 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최고급 양로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이한 점은 여행객들에게도 방을 대여해주는 호텔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제는 1인가구가 갈수록 늘고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가족부양제도에만 의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기에는 가족구조가 너무 변하였고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너무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의 돌봄과 보호의 패러다임으로는 인구고령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늙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자립과 생산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한국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급속도로 고령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심각한 노인문제와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차츰 이런 현실은 노인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팀은 노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건강', '돈', '공동체'라 생각하며 이를 담보하는 보건복지모델과 정책이 '행복한 노년 보내기'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 미래의 노인복지 모델을 고령화라는 불가피한 변화를 미리 경험한 유럽을 탐방국으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유럽 현지에서 노인복지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를 모으고 시설 방문을 통해 담당자와 토론하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지역에 어떻게 접목 시킬 것인지를 고민해 보았다.

삼척 연금수급자의 집을 설립하여 연립구조의 시설로 공동 식사제공, 건강 프로그램 운영, 시골의 자연경관을 만끽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공동생활을 하므로써 노후의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는 노인인구 유입계획을 생각해 보았다.

노인들이 서로 품앗이를 하는 형태로 현재 노인회관을 이용하여 겨울만이라도 독거노인들이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 지역 노인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다. 집에 방문하면 연료비가 아까워서 보일러를 꺼 놓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았고, 식사도 대충 대충 때우는 형태로 여름보다 겨울에 더 지내시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노인회관에 모실 때 장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속히 대처가 가능하고, 추운냉방에서 해방되고, 식사가 해결되며, 우울감 해소로 어

려운 이웃을 서로 돕는 우리 정서로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역시 지원비 (난방비, 식사비용 등)가 문제이고, 건강한 노인이 수발을 드는 형태로 노인일자 리로 해결해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낭여행의 단점을 보완**한다면 복지나 관광 등 테마를 정하 여 그룹이 전문가와 함께 다녀오는 방법도 생각해 볼만 하다.

동유럽의 발전된 노인복지제도와 아름다운 문화유산들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 을 주었고 이번 해외연수는 앞으로 노인 어른들을 모시는데 긍정적인 효과와 업 무추진에 큰 성과와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제공 하여 주신 시장님 외 시청 관계자 여러분들과 힘든 여정을 함께한 동료 김은순팀 장님 외 2명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